

전남 서부권

진도 수산업 '기업화' 추진
생산규모 1조원으로

진도군이 영세한 수산업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규모화·기업화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은 최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등 올해 1차 수산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기업화로 재편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우수 수산물의 제값 받는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주식회사 설립과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어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과 들 푸르게 기쁘오” 해남군 직원들이 지난 16일 해남읍사무소 광장에서 제66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경관조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고 있다. 군은 이날 주민 2000여 명에게 석류나무, 김나무(대봉), 동백나무 등을 3그루씩 무상으로 분양했다. <해남군 제공>

축구 유망주들 우슬벌서 기량대결

해남군, 18~28일 춘계 중등 연맹전

미래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중등 유망주들이 땅끝 해남 우슬벌에서 기량을 겨룬다.
맨 '체스터 유니티' 프리미어십 제47회 춘계 한국 중등(U-15)축구 연맹전'이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우슬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학교 240개팀 9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해남군에서는 저학년부가, 강진군에서는 고학년부가 열리게 된다.
군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경



함평경찰 학교폭력 예방교실

함평경찰서 나산파출소(소장 정종오)는 불철 새끼를 맞아 최근 관내 나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방법을 비롯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 처리절차,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법제 사례와 유형을 소개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북항 활어 위판장 내달 개장

목포수협, 중매인 모집 등 준비작업

목포수협 북항 활어 위판장이 다음 달 말께 문을 연다.
17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2층 규모인 북항 해양수산복합단지내 1104㎡에 활어 위판장과 중매인, 판매과 사무실 신축 공사가 다음달 완료된다.
이에 따라 수협은 다음달말 위판용 목표로 활어 중매인 30명의 모집에 나서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신축 위판장에서는 낙지와 소형 안강망 어선이 잡은 광어, 민어, 농어 등 자연산 활어를 취급한다.
목포수협은 지난 2005년 활어 위판장을 개설해 1년 넘게 운영했지만, 어

민 참여 저조로 문을 닫는 등 두 번이나 활어 위판 사업이 좌절됐다.
양내목 목포수협 활어 위판장은 "어름에는 낙지, 나머지 계절에는 갯벌이 발달한 서해 연안에서 잡히는 싱싱하고 맛있는 농어와 우럭 등 자연산 활어를 취급할 예정이다"면서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수협 위판장을 이용하면 가격안정 등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남해에는 완도와 강진 마량, 진도 서방항에 활어 위판장이 운영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진도, 詩로 삶의 질 높인다

郡, 동외리 등산로에 '향토 시비' 공원

진도읍 동외리 공설운동장 뒤편 등산로에 향토시비(詩碑) 공원이 조성됐다.
진도군은 최근 문화예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시비(높이 3.2m·둘레 2.5m) 제막식을 개최했다.
2개의 시비에는 조선 후기 진도에서 12년간 유배생활을 한 무정 정만조(1858~1936)의 '옥주성 읍내거리 저녁연기'와 진도출신 시조시인 석가정의 '아내에게' 등 주옥같은 시가 새겨졌다.
이번 향토시비 건립은 뜻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향토시비 추진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진도읍은 앞으로도 진도군 출신 중에 널리 알려진 향토시와 창, 잡가 등을 엄선해 지속적으로 시비 건립을 추진,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진도읍 관계자는 "시(詩)의 향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언어로 창의력을 키워준다"며 "시의 동력으로 진도읍의 문화공간 창출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함평 '난 명품전' 11월로 연기

함평군은 오는 26~27일 이틀간 개최 예정이던 '2011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을 구제역 여파로 인해 11월로 연기했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 난연합회(회장 양년일)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은 전국 애란인의 참여로 매회 6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난 전시회로 잘 알려져 있다.
양년일 함평 난연합회장은 "난 산업과 난 문화를 이루는 전국 최고의 대회인 만큼 애란인과 상인들의 크나큰 손실이 불가피하나 구제역의 완벽한 종결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이 현재 예방접종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함평천지 한우'를 기반으로 한 함평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을로 연기한 대제전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이 현재 예방접종 이후

전 북

부안 예술회관 '내실화'

郡, 운영조례 개정...분쟁 소지 개선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예술회관 운영조례'개정을 추진해 운영의 합리성과 내실화를 기한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재의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대에 일부 맞지 않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부안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해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부안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식명칭을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로 정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료 납부와 감면절차 기준 등을 명시해 예술회관을 임대해 공연하는 사용자와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그동안 무료로만 운영돼 예산

부족으로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관람료 유료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관람문화 향상의 기반을 조성했다.
부안 예술회관은 지난해에도 1억여원의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립극단이 공연했던 '고고고' 등 큰 단위로서는 놀랄만한 수준 높은 17개 공연을 유치했다.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최길용 팀장은 "부안군이 비록 큰 단위 시군이 아니지만, 문화예술 공연만큼은 인근 시 단위에 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안은 이번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형수기자 knews@

산림박물관서 '생명의 산' 배우기

순창군 21~31일 행사

순창군 북쪽면 서마리에 위치한 산림박물관(산림환경연구소)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명의 산' 배우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생명의 산' 배우기 행사에 참여하는 중·고·대학생들은 전문 해설사의 알찬 설명과 함께 봉사점수도 쌓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생명의 산' 배우기 행사는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박물관 전시물 2200점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숲과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참여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



지 산림박물관 홈페이지 (www.jbfm.or.kr) 또는 전화(063-652-6792)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새만금 녹색·수변도시 개발 22조

종합개발계획 확정...태양광 단지·특성화 대학 등 건립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401km² 면적의 새만금이 앞으로 '명품 녹색·수변도시'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6차 새만금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명품 녹색·수변도시로 개발 = 이는 지난해 1월28일 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1991년 첫 삽을 뜬 지 20년 만이다.

새만금 총 사업비는 기본 구상보다 1조원 늘어난 22조2000억원이며 정부는 이중 10조9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창조적 녹색·수변도시'를 새만금의 미래상으로 정하고 ▲탄소 프리(Free)도시 조성 ▲생태·녹지네트워크 조성 ▲명품 수변도시 구현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5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시기능을 근접 배치해 교통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용지(20km²)에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특성화 대학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미항(美港)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연접형 항만개발에서 인공섬 방식으로 변경, 총 18선식 규모의 항만을 단계



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형 물 관리체계와 폐기물 전처리시스템 도입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자원재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진과 홍수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친화형 저류지와 방재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깨끗한 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 도시용지의 목표수질은 3등급, 농업용지는 4등급으로 각각 설정하고,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45개 세부과제에 2조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양으로의 과제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복합도시와 농업도시 등을 개발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22조1천900억 원. 올해부터 10년간 13조여 원, 2021년 이후 9조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절반 가량인 11조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1조 원)와 민간자본(10조 원)이다.
문제는 1단계인 2011~2020년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이다. 10년간 용지조성 등을 위해 13조원(국비 6조6000억

원)이 필요한데 연간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새만금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2조8900억 원이 올해부터 투입된다.
이 기간 상류는 가축분뇨 제거와 유지용수 확보를, 하류는 유입수 관리와 인처리시설 설치, 새만금 바깥바다 6곳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다. 하지만 3급수 확보를 위한 예산이 오히려 당초 3조4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줄었고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 8000여억 원에 달해 적기 투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해수유동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목표수질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한 전망이다.
전북도 정환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비(1조 원)와 민간자본(10조 원)이다.
문제는 1단계인 2011~2020년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이다. 10년간 용지조성 등을 위해 13조원(국비 6조6000억

단신

전주한옥마을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이 오는 19일부터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또한 남천교~세종당 한약방 구간 실개천 557m에도 물을 흘려보내며, 폭포와 바다분수·물레방아 등 겨우내 동파 예방을 위해 가동 중단했던 모든 시설물을 재가동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실개천 환경정비와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한다"며 "방문객과 시민 반응에 따라 차량통제 구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군산 월명체육관서 18일 '취업박람회'

'희망 전북 2011 군산 그랜드(GRAND) 취업박람회'가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전북도와 군산권 대표기업 한 마당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현대중공업·KB 중공업·(주)동우·우진이엔지 등 총 36개 기업

이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해 총 42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취업박람회 행사장구성은 채용면접관을 중심으로 취업컨설팅관, 취업·채용지원관, 부대행사관, 이벤트관 등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보건소 제과점 등 식중독 예방 지도

김제시보건소(소장 이병철)는 18일부터 30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와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제과점 등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무표시(무신고)제품 사용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 등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 시민단체 내장산 입장료 폐지 운동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내장산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매표소에서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성인 기준 3000원)를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전개한다.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웅 등 5명)는 지난 16일 "2007년 입장료

가 폐지되고 나서도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입장료가 징수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다음달 2일 매표소 앞에서 '내장산찾기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